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비치발리볼 경기가 열리는 코파카바나 해변은 브라질 특유의 풍취와 흥, 올림픽 열기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장소다. 9일(한국시간) 열린 브라질-아르헨티나전은 큰 관심을 모았다. 리우데자네이루 | AP뉴시스

코파카바나 해변서 느낀 '삼바의 열정'



남장현의 리우 리포트

브라질 특유의 흥·열정 가득찬 경기장
브라질-아르헨 비치발리볼 혈전 방불
외신기자만 37명…최고인기종목 증명

올림픽은 세계인의 대축제다. 전 지구촌이 함께 웃고, 울고, 들썩인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선수단의 상황이 중심이겠지만, '진정한' 올림픽 분위기를 느껴보지 못한다면 역시 상당히 아쉬운 노릇이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앞두고 '꼭 관전해야 할' 종목과 경기 리스트를 정리했다. 물론 핵심은 경기 내용과 결과가 아니었다. 올림픽과 개최지에 대한 인상을 동시에 만끽하고자 했다.

기회를 엿보다 찾은 곳은 비치발리볼 현장. 올림픽의 열기, 브라질 특유의 흥과 정열이 물씬 풍길 것으로 기대했다. 9일(한국시간) 리우의 코파카바나 해변으로 향했다.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리우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관광지인 이곳은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토막 난 시신이 발견돼 충격과 공포를 안기기도 했다.

기우였다.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올림픽이 진행 중인 지금은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리우의 뜨거운 태양과 아름다운 해변은 환상의 조합이었다.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와 철골로 지어진 경기장 본부석 맞은편에서 보이는 푸른 바다는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줬다. 서핑을 즐기는 여행객과 가까운 바다에 띄워진 구축함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사전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매치업도 최상급이었다. 마침 '영원한 앙숙'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격돌했다. 아가타와 바바라가 짝을 이룬 홈팀, 갈레이와 클러그가 호흡을 맞춘 원정팀은 서로 뜨겁게 부딪히고 몸을 날렸다.

섭씨 29도에 육박한 리우의 겨울은 추울 틈이 없었다. 구릿빛 늘씬한 미녀 4명뿐 아니라 스탠드를 가득 채운 관중들에게서도 강한 적개심이 표출됐다. 가벼운 워밍업을 위해 서브를 주고받을 때도 일부러 강하게 볼을 넘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스탠드 곳곳에서 초록색과 하늘색 깃발이 물결쳤고, 엄청난 함성과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장내 아나운서의 역할도 대단했다. 마치 프로레슬링 경기를 중계하는 것처럼 잠시도 입을 쉬지 않았다. 경기장 스크린에 띄워진 출전선수들의 프로필 영상도 섹시함과 건강미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양념이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홈경기에서 골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웅장한 음악이 관중의 함성에 추임새를 넣었다. "오~오오오오~오오!" 스타카토 음정으로 딱딱 끊어지는 "브라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외침에 흥분지수도 점차 높아졌다.

소문난 잔치를 찾은 취재진도 상당히 많았다. 자국 선수단의 경기가 아닌데도 브라질 기자들을 제외하고 정확히 외신기자만 37명이었다. 물론 포토존에서 따로 활동하는 사진기자들을 제외한 숫자다. 스위스의 클로크 기자는 "이런 분위기에서 뛸 원정팀은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홈팀의 세트스코어 2-0 압승. 2개 세트 모두 초반부에 많이 실점했다가 뒤집어버려 흥미를 더했다.

그러나 패한 팀에도 올림픽은 축제였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리우를 찾은 여행객 보르하노는 "이겼다면 더 좋았겠지만 충분히 재미있다. 올림픽이 무엇인지 새삼 느꼈다. 우리도 빨리 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SNS 속에 비친 리우



남아공 마리에칼, 오륜기 쓰고 콜라 한 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남자배드민턴선수 제이콥 마리에칼은 9일(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륜기 모양의 선글라스를 낀 채 한 손에는 콜라를 들고 찍은 사진과 함께 "콜라와 미소를 즐기는 시간"이라고 남겼다. 마리에칼은 12일 한국의 손완호와 남자단식에서 맞붙는다. 사진출처 | 제이콥 마리에칼 인스타그램



펠프스 2세의 '아빠 경기 예고하는 하품'
미국의 수영 스타 마이클 펠프스의 아들 부머의 인스타그램에는 9일(한국시간) 엄마에게 안겨 하품을 하는 사진과 함께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빠의 경기가 곧 시작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펠프스는 남자 접영 200m 준결승 2조 2위로 결승에 올랐다.
사진출처 | 부머 펠프스 인스타그램

#사격 진종오 #50m 권총 #명예회복

#해시태그 리우

10일 오후 9시 남자 50m 권총 본선



'사격황제' 진종오(37·kt)가 10m 공기권총 노메달의 아픔을 딛고 50m 권총을 장전한다.

진종오는 10일 오후 9시(한국시간) 올림픽 슈팅센터에서 열리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 50m 권총 본선에 출전해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2008년 베이징대회 이 종목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12년 런던대회에서도 금빛 총성을 울린 바 있다. 7일 10m 공기권총에서 결선 5위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만큼, 50m 권총에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리우행 비행기에 오른 남자복싱 함상명(21·용인대)도 10일 오후 11시30분 밴텀급(56kg) 32강전에 나선다. 함상명은 당초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놓쳤다. 그러나 같은 체급의 다른 나라 선수가 출전을 포기하면서 AIBA(AIBA프로복싱) 랭킹 3위인 함상명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극적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된 만큼 그 누구보다 오래도록 링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다.

남현희(35·성남시청)는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뛴다.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이 10일 오후 8시30분부터 시작된다. 총 4번의 아시안게임에선 6개의 금메달을 따냈지만, 올림픽에선 은메달과 동메달을 1개씩 따냈을 뿐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다.

아시안게임 3연패에 빛나는 김동선(27·한화갤러리아)은 10일 오후 10시 승마 마장마술 개인 1차 예선으로 첫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2연패에 빠진 여자핸드볼대표팀은 11일 오전 7시 50분 네덜란드와 조별리그 B조 3차전을 치른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브라질에선 아이스라테 찾지 마세요"

커피숍에선 얼음·우유 폭탄가격
"신성한 커피에 대한 모욕이라나…"

봉 지아 리우

'브라질'을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나요? 먼저 삼바 축제가 있고, 축구가 있겠죠? 물론 한시적이겠지만 당분간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요즘은 아프리카 케냐와 에티오피아, 동남아시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추가됐지만 커피는 그래도 브라질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18세기 무렵 유럽에서 들여온 커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수출하는 나라랍니다.

리우올림픽 현장에서도 커피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온 5000여 명의 취재진(방송·중계인력 제외)의 집합소인 리우 바하 지역의 미디어센터를 비롯해 각 경기장에 마련된 소규모의 미디어 룸에서 커피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체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500ml짜리 물 한 병을 6헤알(약 2000원)씩 받으며 바가지를 씌우고 있지만, 커피만큼은 유일하게 무료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커피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현장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다. 물 한 병도 유료로 판매하지만, 브라질의 최상급 커피는 취재진에게 유일하게 무료로 제공된다. 미디어센터에도 커피포트가 준비돼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장현 기자

솔직히 한국의 자랑거리(?)인 '믹스커피'에 적응된 터라, 쓰디쓴 브라질 커피가 그리 맛있지는 않습니다. 설탕을 아무리 뿌리고 또 뿌려도 입안이 쓥쓸해 한 잔도 채 마시지 못할 때가 많네요. 평소 하루 2~3잔씩 들이키는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달달하고 시원한 커피가 어찌나 생각나던지, 결국 참다못해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마침 유명 관광지인 코파카바나 해변을 방문한 길에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카운터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아이스라테 플리즈~."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이 계속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이스카페 플리즈~." 고개를 끄덕이는가 싶더니 다시 갸웃거리네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해 포르투갈 단어까지 보여줬는데도 당최 이해를 못하던 이 사람이 참 답답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보니 이유가 있더군요. 브라질에선 커피에 이물질(특히 얼음)을 추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성한 커피'에 대한 모욕이라나?

하지만 시간을 쪼개고 위험까지 감수하며 외출한 터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제조하기로 합니다. 먼저 작은 에스프레소를 시킨 다음 우유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얼음까지 보태니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32헤알(약 1만1000원). 심지어 우유도 산양 젖이 나왔네요. 어렵게 만든 아이스라테의 맛이 아주 구토를 유발하네요. 아이스라테를 마시겠다는 일념으로 야심차게 시도한 일탈은 그렇게 처참한 귀결로 이어졌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장현 기자

연예 기자가 뽑은 올림픽 스타



러시안 섹시! 배구선수 곤차로바
9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22점을 올리며 활약한 러시아 여자배구 선수 나탈리아 곤차로바. 195cm의 큰 키로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는 모습은 마치 여전사를 연상시킨다. 경기 중 얼굴을 감싸 쥔 모습은 사뭇 여성스럽기도 하다. 긴 생머리, 오뚝한 콧날, 매력적인 큰 눈동자. 살짝 태운 피부는 '섹시'의 아이콘이라 불릴 만하다. 나탈리아 곤차로바는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 역시 세계적인 선수다. 강력한 스파이크는 높이와 힘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11일 새벽 5시 러시아와 카메룬의 여자배구 예선 A조 경기에서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中 장난 외도…고성현-김하나조 호재

배드민턴 혼복 세계 1위 부부 불화설

배드민턴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한국의 금메달 획득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특히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이용대(28·삼성전기)-유연성(30·수원시청)은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이용대-유연성에 가려있지만, 혼합복식 고성현(29·김천시청)-김하나(27·삼성전기)도 금메달을 기대해볼 만하다. 고성현-김하나는 올 시즌 독일오픈 그랑프리 골드와 싱가포르오픈 슈퍼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등 꾸준히 4강 이상의 성적을 내왔다. 세계랭킹도 2위까지 끌어올렸다. 리우올림픽 개막 이전 USA 투데이는 한국이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딸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여기에 외부적 요인도 고성현-김하나의 금메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세계랭킹 1위 장난(26)-자오윤레이(30·중국)가 불화설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교제해온 둘은 2012년 런던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 획득 후 지난해 결혼했다. 그러나 올해 초 남편 장난이 바람을 피우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갔다.

장난이 아내 몰래 만난 여자는 톈칭(30)으로 알려졌다. 톈칭은 자오윤레이의 여자복식 파트너로 런던올림픽에서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사이다. 올림픽을 위해 중국 언론은 이를 최대한 숨기는 분위기다. 한 국제배드민턴 관계자는 "중국에선 장난-자오윤레이 커플에 대한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 선수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선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중국배드민턴협회에서 올림픽을 위해 둘을 화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아무래도 심리적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성현(왼쪽)과 김하나

세계배드민턴 무대에서 중국과 라이벌 관계인 나라들에선 이들에 대한 기사를 조심스레 실어 '중국 흔들기'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언론 JPNN은 6월 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오픈 슈퍼시리즈프리미어 혼합복식 4강에서 장난-자오윤레이가 고성현-김하나에 0-2(14-21 17-21)로 무너지자 '장난-자오윤레이의 사랑, 균열됐다?'라는 기사를 실어 이들의 불화를 알리기도 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리우 안테나

한국 탁구, 단식 모두 중도 탈락
남녀탁구가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단식에서 모두 중도탈락했다. 남자 정영식(24·미래에셋)과 이상수(26·삼성생명)가 9일(한국시간) 각각 16강전과 32강전에서 탈락한 데 이어 여자 서효원(29·렛츠런)과 전지희(24·포스코에너지)도 모두 16강전에서 패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정영식은 리우센트루 3관에서 열린 16강전에서 세계랭킹 1위 마롱(중국)에게 세트스코어 2-4로 고배를 마셨다. 이상수는 아드리안 크리산(루마니아)과의 32강전에서 3-4로 졌다. 서효원은 16강전에서 쳉이칭(대만)에게 3-4, 전지희는 유멩유(싱가포르)에게 1-4로 각각 패했다.

쑨양, 아시아선수 첫 남 자유형 200m 金
중국 수영스타 쑨양이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왕좌에 올랐다. 쑨양은 9일 아쿠아틱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0m 결승에서 1분44초65만에 터치패드를 찍고 우승했다. 채드 르 콜르스(남아공)가 1분45초20으로 2위, 코너 드와이어(미국)가 1분45초23으로 3위에 올랐다.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놓쳤던 쑨양은 2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2012런던올림픽 200m 공동 은메달의 아쉬움을 풀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